

## 제 2회 YSSW 워크숍 회의록

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일시 : 2014-07-04

작성자 : 박종엽

### 1. 이번 모임에 대해서...

양희수 : 예상치도 못했던 발표들이 있었으며, 유익했다. 회차마다 방향이 다르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 워크숍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박성홍 : 고민을 많이한 워크숍이었다. 일반학회에서는 발표 할 수 없는 주제와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매번 이런 주제의 발표는 어려울 것 같으며,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주최측(LOC)에서 번갈아가며 준비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모임의 방향은 SOC들이 정하고, LOC는 행사 주최에 관한 지원을 하는 좋을 것 같다.

### 2.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문제

이우경 : 우주과학회 태양우주환경분과 신설, 워크숍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양희수 : 천문학회에는 YAM이 있으며, 분과별로 젊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 볼수 있을 것 같다.

박종엽 : YAM 과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데, YAM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홍 :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예산을 지원 받으면 워크숍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양희수 : 회칙이나 정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YAM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구 이외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았다.

박종엽 : 우리 모임은 참석자나 준비자나 가능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함.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모임이 조직화 될 필요성이 있음. 다음 모임을 위해 매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모임의 운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면, 구성원의 참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받는 것을 고려

박성홍 : 학교에서 주최할 경우, 교수님께서 지원해주실수도 있을 것 같다.

박종엽 : 학교별로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주최측 교수님에게만 부담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양희수 : SOC 멤버들이 학회에 지원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박종엽 :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고,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운영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으며, 모임의 구성원이 부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희수 : 개인적인 등록비는 부담없을 것 같다.

박종엽 : 이번 회차에 분과별로 튜토리얼이나 학술적인 행사를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하루 일정으로 어려울 것 같으며, 최소 1박 2일이 필요하고 이 경우 등록비가 비싸질 수 있다.

박종엽 : 기부금을 창구를 열어 비공식적으로 지원받아 모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가? 기부금은 누구나 낼 수도 있으며, 모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부금으로 모임 운영에 대해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

이재욱 :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부족할 것 같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회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양태용 : 회비를 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출장비를 지원받은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었다). 출장비를 받은 학생의 경우 회비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분과별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박종엽 : SOC가 예산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SOC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우경 : 하지만 SOC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양희수 : 지난번(1회) 모임에서는 서울대 LOC들이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서, 참석자들의 출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음. SOC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종엽 : 이 논의시간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모임을 위한 SOC들이 참고하고 결정할 것이다.

김현남 : YAM 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좋은 모임이라면 회비는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

양희수 : YAM은 다양한 분야가 모여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천문학회와 우주과학회가 나누어져서 교류가 어려운점도 있다.

박종엽 : 최종적인 목표는 친목을 통해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더 익숙해지면 튜토리얼이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다. Yam과의 모임의 형태에 대한 차이는 우리는 방학기간에 미리 만나서 친해지고, 학회 때 학술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김현남 : 지속가능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에서는 SOC가 희생하여야 한다. 회비는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박종엽 : YAM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조직이 있고 조직의 구성원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점이다. 조직의 구성원 역시 우리는 같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연구가 제일 중요할 것이며, 조직의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직이 어려워지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YAM과의 구조적 차별성은 누구나 자진해서 SOC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뜻을 모아 다음모임을 준비하는 것이다.

박성홍 : 이 모임은 친목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 함께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분야가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분과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 교류를 해야 한다. 당분간 친목을 가지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자. SoC가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 같다.

박종엽 : SOC 가 모임의 방향을 정하고 LOC가 모임을 주최해야 함. 하지만 이번에는 LOC가 주최하고 모임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분과별 모임을 할 여지가 없었다.

### 3. 다음번 모임

양희수 : 샤인 미팅에서 Student day가 있었다. 여러개의 포괄적인 학술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내가 잘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종엽 : 김수진 박사님께서 노베야마 천문대에서 Guest가 왔을 때 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테이블 토론을 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한번 시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우경: 전문가를 초청해서 튜토리얼을 한다. 다른 분야라도 튜토리얼을 하면 도움이 되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김현남 : 각 분야별로 위키에 지식을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입생을 위한 매뉴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워크샵에서 모두 모여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강진 : 친목도모를 위해 세션 이외의 시간, 즉 식사시간 or 만찬에서 끼리끼리 있지 않게, LOC 들께서 잘 섞어주셔서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재욱 : CCMC에서는 어떤 Event 가 터졌을 때, 여러 분야가 모여서 레포트를 해보는 것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4. 다음 모임 SOC

양희수, 지은영, 김정현, 신대규, 박종엽, 이종길, 임다예